금속투쟁속보 28호

발행일 2025년 6월 2일(월)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현대건설기계 서진이엔지 불법파견 2심도 '인정'

소송 4년 2개월만‥ 현중사내하청지회 "즉각 해고자 복직, 정규직화"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2심 소송에서 이겼다.

금속노조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진이엔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원직 복직과 불법파견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원청 HD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을 재차 인정한 것. 소송 제기 4년 2개월 만이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묵묵히 싸워온 해고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입을 뗐다. 허원 노조 부위원장은 "법원도 서진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라며 "현대중공업 자본은 불법파견을 사과하고 즉각 서진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현대건설기계가 또다시 상고를 시도한다면 수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과 패소 시 해고 기간 노동자 임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라며 "패소가 명백한 사안을 시간 끌기로 버티는 것은 사실상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호 법률원장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해고자 복직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박병선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은 "2심 판결을 환영하지만 당연한 결정에 5년 가까이 걸렸다"라며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업 모든 하청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HD현대건설기계 사측을 향해 "더 이상 소송으로 노동자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책임 있는 사과와 복직 조치에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이병락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해고 노동자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1,760일이 넘었다"라며 "처음 농성장을 설치하며 결의 다지고 손도장 찍던 날이 떠오른다"라고 울먹였다.

소송 당사자인 이병락 지회장은 "HD현대건설기계는 수십 년간 업체 이름과 대표만 바꿔가며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불법적으로 이윤을 쌓아왔다"라며 "늦어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서진 노동자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파견법을 만든 민주당에 파견법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